

2020년 제주평화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미중갈등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일시: 2020년 7월 24일(금) 10:00-12: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대회의실

주최: 제주평화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회의 취지

지정학적 특성상 한국은 어떤 나라보다 치밀한 대외전략을 통해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세계무대에서 그 역할이 사라질 수 있음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미 체득한 바 있다. 특히 세계정치의 흐름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기에는 더욱 민감하게 그 흐름을 추적해야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위상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파도의 높이와 수준은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세계적 수준에서의 강대국 외교의 흐름을 살피면서도 주변의 중견국들과 약소국들의 움직임도 함께 분석해야 하고, 지역적 수준에서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을 내세워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미중관계다. 물론 미중관계 자체에 한국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대외전략을 만들어나가는 데 기본적인 구조적 제약이 되는 만큼, 미중갈등의 양상과 그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인도,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형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홍콩보안법을 통해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요컨대, 코로나 국면으로 잠시 휴면 상태를 가졌던 미중갈등이 언제라도 다시 증폭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관세에서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은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장되면서 본격적인 패권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최근 부쩍 증가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제주평화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로 마련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중갈등의 양상을 추적하고 그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전략적 선택을 검토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10:00~10:10] 인사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0:10~10:25] 기조연설

- 정영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0:25~11:50]

- 사회: 손정욱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 발제

1.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미 대선에 따른 미중통상관계 전망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 재조정: 비판적 평가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자유토론

[11:50~12:00] 폐회

참석자명단

제주평화연구원(6명)

손정욱(연구실장), 한인택(연구위원), 정승철(연구위원), 김애리(연구원), 장훈필(연구원), 안경은(연구조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5명)

김흥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여준(팀장), 연원호(부연구위원), 정영록(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보은(연구원)